OK! 지금은 전남시대

-제40기 전라남도 미래인재육성 과정-

정책과제연구(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전남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스페인·포르투갈 정책연수 -



스 포 주 의 보

(3분임)

목 차

Ⅰ. 연수 개요 ····· 1

1. 연수 목적 및 추진방향 ····· 1

2. 연수 개요 ····· 2

3. 연수 일정 ····· 3

4. 연수 참가 인원 ····· 4

Ⅱ. 국가별 정책 및 현장연수 내용 ····· 5

1. 스페인 ····· 5

2. 포르투갈 ····· 13

Ⅲ. 정책 시사점 ····· 16

Ⅳ. 전라남도 정책제안 ····· 18

1. 정책비전 ····· 18

2. 5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 ····· 18

3. 단계별 추진 로드맵 ····· 25

Ⅴ. 결론 ····· 26

Ⅰ.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및 추진방향

■ 연수 배경

○ 글로벌 도시 경쟁이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관광·기술·친환경 정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역사문화 자산과 혁신산업을 연계한 도시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스마트기술, 농업·식품산업 고도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전남 농업 대전환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바르셀로나의 스마트도시 정책, 마드리드의 에너지 전환 정책, 리스본의 도시재생 전략, 포르투의 문화예술 기반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은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전라남도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전라남도는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 여수·광양 중심의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산업구조 변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이에 본 연수는 스페인·포르투갈의 선진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전남의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추진함.

■ 연수 목적

○ 유럽 선진도시의 도시재생 및 문화관광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전남형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 산업·문화·관광이 융합된 도시브랜드 전략을 연구하여 전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 생활인구 확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

○ 역사문화자원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글로벌 도시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남 미래성장동력 발굴

■ 추진 방향

○ 문화·관광·산업·에너지 정책이 융합된 유럽 도시혁신 모델 분석

○ 도시별 특성과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전남 적용 가능성 검토

○ 현장 중심의 정책 연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

○ 관광·문화·도시재생·친환경 정책 간 연계 방안 도출

2 연수 개요

■ 연수 기간

○ 2026. 4. 14.(화) ~ 4. 24.(금) / 9박 11일

■ 방문 국가

○ 스페인, 포르투갈

■ 주요 방문지역

○ 스페인 :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론다, 세비야, 마드리드, 톨레도

○ 포르투갈 : 리스본, 포르투

■ 주요 방문기관 및 정책현장

○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22@Barcelona, Supercomputing Center(BSC)

○ 안달루시아 농업국

○ 마드리드 혁신센터 La Nave

○ 포르투 WOW Porto Cultural District

○ 스페인·포르투갈 주요 역사문화지구 및 도시재생 현장

3 연수 일정

일자	지역	주요 일정
4.14.(화)	인천 → 바르셀로나	인천 출발, 바르셀로나 도착
4.15.(수)	바르셀로나	몬세라트, BSC 슈퍼컴퓨팅센터, 구엘공원, 고딕지구
4.16.(목)	그라나다·론다	농업협동조합, 알함브라궁전, 론다 누에보 다리
4.17.(금)	세비야	안달루시아 농업국, 세비야 대성당, 스페인 광장
4.18.(토)	리스본	카보다로카, 제로니모스 수도원, 트램투어
4.19.(일)	포르투	오비두스, 아게다, 포르투 야경 및 케이블카
4.20.(월)	포르투 → 마드리드	WOW Porto, 포르투 역사 지구
4.21.(화)	톨레도·마드리드	톨레도 대성당, 유대인 거리, 프라도 미술관
4.22.(수)	마드리드·바르셀로나	La Nave, 마요르 광장, 스페인 광장
4.23.(목)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22@, 사그라다 파밀리아
4.24.(금)	인천	인천 도착

4 연수 참가 인원

연번	소속	성명	역할 및 담당 분야
1	전남도	윤선주	연수단 총괄 인솔 및 대외 협의
2	광양시	김봉진	분임장, 연수 운영 총괄 및 정책과제 조정
3	목포시	김미영	문화관광 분야 사례 조사 및 시사점 정리
4	전남도	김수정	농업정책 및 스마트농업 분야 자료 조사
5	함평군	김재열	농촌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사례 조사
6	순천시	김희정	생태관광·정원산업 연계 정책 조사
7	전남도	문정오	산업 대전환 및 지역경제 정책 분석
8	여수시	박웅비	에너지전환 및 산업단지 연계 사례 조사
9	전남도	선승필	조사자료 총괄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나주시	안소희	농식품 가공·유통 및 푸드테크 사례 조사
11	영광군	안수인	신재생에너지 및 농촌 융복합 정책 조사
12	장흥군	이선화	바이오·치유농업 및 지역자원 활용 사례 조사
13	전남도	이영자	연수결과 종합 정리 및 정책제안 검토
14	진도군	장민우	문화유산·농어촌 관광자원 연계 사례 조사
15	보성군	정은진	차산업·웰니스 관광 및 농업 고부가가치화 조사
16	전남도	주대승	스마트팜·농업 AX 정책 분석 및 자료 정리
17	완도군	주정화	해양치유·수산식품 연계 산업화 사례 조사
18	영암군	천영임	청년농 육성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례 조사
19	강진군	최치성	농촌관광·체험교육 및 지역브랜드 사례 조사
20	해남군	홍순근	친환경농업·기후대응 농업정책 사례 조사
21	곡성군	황규현	농촌체험·관광 콘텐츠 및 생활인구 확대 사례 조사

Ⅱ. 국가별 정책 및 현장연수 내용

1 스페인

1) 바르셀로나 - 혁신도시 및 스마트관광 정책



사진 설명 :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방문

■ 바르셀로나 도시개요

○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로 관광·문화·첨단산업이 융합된 유럽 대표 혁신도시임.

○ 도시 전역에 역사문화 자산과 현대적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정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22@Barcelona

○ 22@Barcelona는 바르셀로나 동부 포블레노우(Poblenou) 지역의 노후 산업지대를 지식기반 산업, 창업, 연구개발, 주거, 문화가 결합된 혁신지구로 전환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임.

○ 과거 방직공장과 제조업 시설이 밀집했던 지역을 단순 철거하지 않고, 기존 산업유산과 도시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ICT, 미디어, 디자인,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을 유치함.

○ 산업유산을 문화공간·창업공간·업무시설로 재활용하고, 주거·공원·문화시설·교육시설을 함께 배치하여 직주근접형 복합 혁신공간으로 조성한 점이 특징임.

■ Barcelona Supercomputing Center(BSC)

○ BSC는 유럽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팅 연구기관으로 인공지능, 기후변화, 바이오,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 'MareNostrum'을 운영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산업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 단순 연구기관을 넘어 대학·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하는 혁신생태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주요 시사점

○ 노후 산업공간도 기술·창업·문화 기능을 결합하면 지역혁신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음. 전남도 농업 AX 플랫폼과 원도심·농공단지 유휴공간을 연계해 스마트농업 기업과 청년창업 공간을 집적할 필요가 있음.

○ AI·빅데이터 기반 연구역량은 산업 전환의 핵심 인프라임. 전남농업도 생산·유통·기후·병해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농업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농가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해야 함.

○ 혁신지구는 시설 조성보다 협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함. 전남도, 22개 시군, 대학, 연구기관, 농협, 스마트농업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함.

2) 그라나다 - 문화유산 기반 도시브랜드 전략



사진 설명 : 알함브라 궁전 방문

■ 알함브라 궁전

○ 알함브라 궁전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슬람 문화와 유럽 문화가 융합된 대표적 역사유산임.

○ 단순 관광지를 넘어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는 핵심 자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도시브랜드 전략

○ 그라나다는 역사문화자산을 도시 전체의 브랜드 전략과 연계하여 관광, 문화산업, 지역상권 활성화에 성공함.

○ 도시 경관과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도 관광객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킴.

■ 주요 시사점

○ 전남의 역사문화자원(순천 낙안읍성, 강진 고려청자, 해남 대흥사 등)을 체류형 관광과 연계 필요

○ 지역별 특화 스토리텔링과 브랜드 전략 강화 필요

○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산업 육성의 균형 필요

3) 세비야 - 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도시재생 정책



사진 설명 : 안달루시아 농업국 방문

■ 세비야 대성당 및 스페인 광장

○ 세비야는 세계 3대 성당 중 하나인 세비야 대성당과 스페인 광장 등 세계적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왔음.

○ 1929년 이베로아메리카 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된 스페인 광장은 도시브랜드의 상징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플라멩코 문화산업

○ 세비야는 플라멩코를 단순 공연이 아닌 도시 대표 문화콘텐츠로 육성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있음.

○ 지역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도시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이미지를 동시에 구축함.

■ 안달루시아 농업국

○ 안달루시아 지역은 유럽 최대 농업 생산지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과 친환경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농업 생산뿐 아니라 가공·유통·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주요 시사점

○ 전남 농업 역시 생산 중심에서 체험·관광·문화가 결합된 6차산업 구조로 전환 필요

○ 남도음식과 지역문화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콘텐츠 개발 가능

○ 농촌 체류형 관광 및 로컬브랜드 육성 필요

4) 마드리드 - 에너지전환 및 혁신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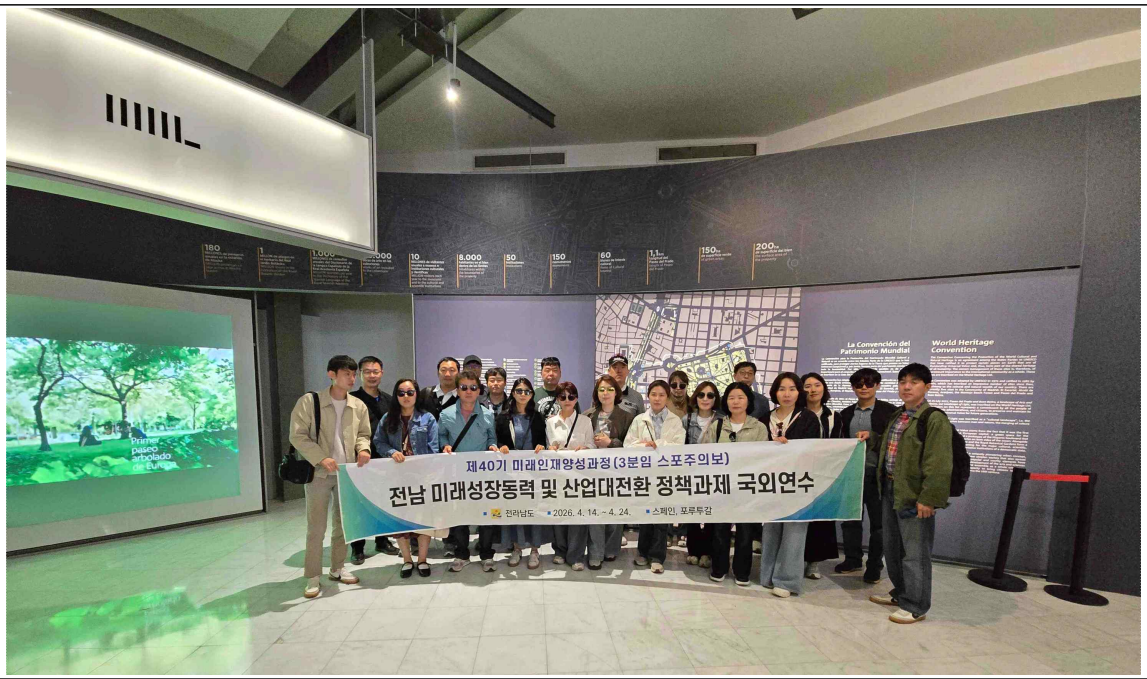


사진 설명 : 마드리드 혁신센터 방문

■ 마드리드 혁신센터 La Nave

○ La Nave는 마드리드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창업지원 혁신센터로, 디지털 기술과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대표 공간임.

○ 청년 창업기업과 기술기업, 투자기관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기술 기반 도시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스페인 에너지 정책

○ 스페인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확대하며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

○ 마드리드는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체계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시사점

○ 전남도 역시 에너지신산업과 창업생태계를 연계한 혁신정책 추진 필요

○ RE100, 수소산업, 해상풍력 등과 연계한 미래산업 육성 가능

○ 청년 창업지원과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 필요

5] 톨레도 - 역사문화 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



사진 설명 : 톨레도 구시가지 방문

■ 도시개요

○ 톨레도는 스페인의 대표 중세도시로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 기독교·이슬람·유대 문화가 공존했던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독창적 도시브랜드를 구축함.

■ 관광 활성화 전략

○ 도시 전체를 박물관처럼 운영하며 보행 중심 관광동선을 구축하고 있음.

○ 역사 건축물 보존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음.

■ 주요 시사점

○ 전남 원도심과 역사문화지구의 도시재생 방향 제시

○ 관광객 중심의 보행친화 도시환경 조성 필요

○ 야간관광·체험형 콘텐츠 확대 필요

2 포르투갈

1) 리스본 - 도시재생과 관광산업 연계 정책



사진 설명 : 리스본 구도심 방문

■ 도시재생 정책

○ 리스본은 노후 도심과 항만지역을 문화·관광 중심 공간으로 재생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함.

○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관광 인프라를 결합해 도시 활력을 회복함.

■ 트램 기반 관광 활성화

○ 리스본은 전통 트램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음.

○ 교통수단 자체를 관광상품화하여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 주요 시사점

○ 전남도 역시 해양·철도·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형 교통콘텐츠 개발 가능

○ 원도심 재생과 관광 활성화를 연계한 정책 필요

○ 지역 특성을 살린 감성 관광콘텐츠 확대 필요

2] 포르투 - 문화예술 및 도시브랜드 전략



사진 설명 : 포르투 WOW(World of Wine)방문

■ WOW Porto Cultural District

○ WOW Porto는 와인산업과 문화예술, 관광을 결합한 복합 문화 지구로 조성되어 있음.

○ 산업유산과 지역 정체성을 활용하여 관광객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함.

■ 포르투 역사 지구

○ 포르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역사적 도시경관과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전략을 추진 중임.

○ 와인 산업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결합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함.

■ 주요 시사점

○ 전남의 전통산업과 문화자산을 결합한 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 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광지 조성 가능

○ 여수·목포·순천 등 원도심 기반 문화관광 활성화 필요

Ⅲ. 정책 시사점

1. 농업혁신 거점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 유럽 선진도시는 역사문화 자산과 노후 산업공간을 단순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연구·관광·문화 기능이 결합된 혁신공간으로 재편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전남 농업도 생산 중심의 농촌공간에서 벗어나 스마트팜, 농업 AX 플랫폼, 농식품 가공시설, 농촌체험·교육 공간이 결합된 복합 농업혁신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휴 공공시설, 폐교, 농공단지, 원도심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농 창업공간, 스마트농업 실증공간, 농식품 가공·판매 공간을 조성하면 농촌 활력 회복과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2. 농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전남형 농산업 혁신전략 필요

○ 바르셀로나 혁신지구와 BSC 사례는 산업 전환의 핵심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창업공간이 집적된 혁신생태계 구축에 있음을 보여줌.

○ 전남은 농업 생산 기반이 강하지만 AI·빅데이터·로봇·센서·푸드테크 등 첨단기술과의 결합은 아직 확산 단계에 있으므로, 농업을 첨단산업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함.

○ 국가농업 AX 플랫폼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기업, 대학, 연구기관, 농협,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업데이터센터와 실증단지를 연계하여 전남 농업의 산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함.

3. 친환경 · 저탄소 농업과 에너지전환의 연계 강화

○ 유럽 주요 도시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스마트도시 정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전남 농업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생산방식 전반을 친환경·저탄소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등 전남의 에너지 자원과 스마트팜, 농산물 가공시설, 농촌마을 에너지 자립모델을 연계하면 농업 경영비 절감과 탄소중립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4. 농촌 체류형 관광과 6차산업을 통한 농업 부가가치 확대

○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문화 체험, 로컬푸드, 농촌생활, 교육·치유 프로그램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 전남은 남도음식, 해양관광, 농촌체험, 친환경 농산물, 차문화 등 농업·농촌 자원이 풍부하므로 이를 체류형 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 모델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보성 녹차, 고흥 유자, 해남 고구마, 나주 배, 무안 양파 등 지역 특화품목을 활용하여 체험·교육·가공·판매·수출이 연결되는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해야 함.

Ⅳ. 전라남도 정책제안

1) 정책 비전

“농업에 기술을 심다, 전남의 미래를 키우다”

○ 전남 농업은 전국 최대 수준의 농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령화·노동력 부족·기후변화·낮은 부가가치·전후방 산업 취약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

○ 따라서 전남 농업정책은 단순한 생산 지원에서 벗어나 AI·로봇·데이터·바이오·푸드테크가 결합된 농업 대전환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

○ 본 정책제안은 전남 농업을 “식량 창고”에서 “미래 성장 엔진”으로 전환하기 위해 **①농업 AX 기반 구축, ②로봇·자동화 농업 확산, ③그린바이오·푸드테크 고도화, ④전남형 6차산업 및 수출농업 육성, ⑤농업혁신 인재 정주 생태계 조성**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함.

2) 5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



1. 농업 AX 기반 구축

■ 추진배경

○ 전남 농업은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수급 불안정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 경험 중심 농업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AI·빅데이터·로봇·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전 과정에 접목하는 농업 AX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국가농업 AX 플랫폼을 전남 농업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기업지원, 교육·컨설팅, 데이터 분석 기능 통합 운영
- 스마트농업 기업, 대학, 연구기관, 청년창업 공간이 집적된 농업 AX 혁신지구 조성

○ **농업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 작물 생육, 토양, 기상, 병해충, 가격·유통 데이터를 통합 관리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육 예측, 재해위험 예측, 수급 전망, 출하시기 조절 지원

○ **AI 영농지원 서비스 도입**

- 고령농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음성 기반 AI 영농비서 제공
- 병해충 진단, 농약·비료 사용, 기상재해 대응, 출하시기 안내 등 맞춤형 정보 제공

■ 추진체계



■ 기대효과

○ 경험 중심 농업에서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전환

○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기후재난 대응력 강화

○ 전남을 대한민국 농업 AX 선도지역으로 육성

2. 로봇 · 자동화 농업 확산

■ 추진배경

○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노동집약적 농업방식의 한계가 커지고 있음

○ 특히 노지작물은 기상재해, 병해충, 인력 부족에 취약하므로 로봇·드론·자율주행 농기계 기반의 자동화 체계가 필요함.

■ 주요내용

○ **농작업 로봇 대행서비스 도입**

- 시군 단위 농작업 로봇 대행단 운영
-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방제, 자동이앙기, 수확 보조로봇, 스마트 제초기 공동 활용
- 농협·농업기술센터·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

○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확대**

- 마늘·양파·대파·배추 등 전남 주력 노지작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관수, 드론 방제,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 기상·토양·병해충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물별 재배 매뉴얼 표준화
- 고흥·해남·무안·영암·장흥 등 기존 스마트팜 및 원예단지 기반과 연계

■ 기대효과

○ 고령농의 농작업 부담 완화

○ 농번기 인력난 및 인건비 부담 감소

○ 기후재난 대응력 강화

○ 노지농업의 생산성·품질 안정성 향상

3. 그린바이오 · 푸드테크 산업화

■ 추진배경

○ 전남은 유자, 양파, 고구마, 녹차, 배, 김 등 경쟁력 있는 농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물 출하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음.

○ 농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산 중심에서 가공·소재화·기능성 식품·바이오 산업으로 확장해야 함.

■ 주요내용

○ 전남형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나주 식품, 장흥 천연물, 화순 바이오, 순천·곡성 미생물 자원을 연계한 광역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종자, 미생물, 천연물, 기능성 식품, 반려동물 소재, 바이오비료 등 6대 분야 집중 육성
- 대학·연구기관·기업 공동 R&D 및 실증사업 추진

○ 전남 특화작물 고부가가치화 프로젝트

- 고흥 유자 : 기능성 음료, 건강식품, 향장 소재 개발
- 무안 양파 : 항산화·건강기능성 소재화 및 가공식품 개발
- 해남 고구마 : 간편식·디저트·글로벌 스낵 제품화
- 보성 녹차 : 웰니스·뷰티·차문화 관광상품 연계
- 나주 배 : 프리미엄 주스, 발효식품, 수출 포장 브랜드 개발
- 완도 김 : 고급 스낵, 단백질 식품, 글로벌 K-푸드 상품화

○ 산지 가공·스마트 유통체계 구축

- 산지유통센터(APC)에 AI 선별·품질분류·자동포장 시스템 도입
- 농산물 온라인 거래와 연계한 스마트 물류 거점 조성
- 생산-가공-유통-수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남 농식품 ERP 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원물 중심 농업의 한계 극복

○ 농산물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향상

○ 전남 농식품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 K-푸드 수출 확대 기반 마련

4. 전남형 6차산업 · 수출농업 육성

■ 추진배경

○ 농업의 미래가치는 생산뿐만 아니라 브랜드, 체험, 교육, 관광, 수출과 결합할 때 확대됨.

○ 전남 농산물은 품질 경쟁력이 높지만 품목별 브랜드·가공·유통·수출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 전략이 필요함.

■ 주요내용

○ **품목별 프리미엄 브랜드 강화**

- 유자, 배, 녹차, 고구마, 양파, 김 등 전남 주력 품목별 품질기준, 포장디자인, 인증체계, 스토리텔링을 통합 관리

- 친환경·저탄소·스마트농업 인증과 연계한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 육성

○ **농촌체험·관광·교육 융합모델 개발**

- 보성 녹차, 해남 고구마, 고흥 유자, 나주 배 등 품목 기반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스마트팜·기후농업·생태농업을 활용한 교육형 농촌관광 콘텐츠 운영
- 체험, 숙박, 식음, 농산물 구매를 연계한 통합형 농촌관광 플랫폼 구축

○ **수출형 스마트농업·유통체계 구축**

- 수출 유망 품목 중심의 AI 선별, 품질 표준화, 콜드체인 물류, 공동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생산·가공·재고·출하·수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청년농 창업 안정성 제고

○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 육성

○ 수출지향형 농업모델 확산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정주인구 확대

5. 농업혁신 인재 정주 생태계 조성

■ 추진배경

○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농 유입과 함께 시니어 농업인의 경험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인재 생태계가 필요함.

○ 농업을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 창업, 주거, 판로, 지역 커뮤니티가 결합된 정주지원 체계가 요구됨.

■ 주요내용

○ **청년농 테크창업 지원**

- 스마트팜, 농업로봇,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분야 청년 창업 지원
-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농장, 공동가공시설, 창업공간을 연계 제공
- 교육-실습-창업-판로-투자유치까지 연결되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시니어-청년 세대융합 농업학교 운영**

- 시니어 농업인은 재배기술과 지역 적응 노하우를 전수
- 청년은 스마트기기 활용, 온라인 판매, 데이터 입력, 농장 자동화 운영을 지원
- 농업기술센터, 대학, 농협이 참여하는 현장형 농업학교 운영

■ 기대효과

○ 청년농 유입 및 농촌 정착 확대

○ 농업기술 전승과 디지털 전환 동시 추진

○ 세대 간 협력 기반 농촌 공동체 회복

3) 단계별 추진 로드맵



Ⅴ. 결론

○ 이번 스페인·포르투갈 정책연수는 혁신지구 조성, 데이터 기반 연구역량, 농업·식품산업 고도화, 문화·관광 융합정책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확인한 의미 있는 기회였음.

○ 바르셀로나 혁신지구와 BSC 사례는 산업전환의 핵심이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청년창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생태계 구축에 있음을 보여줌.

○ 안달루시아 농업정책과 포르투의 문화산업 사례는 농업도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 관광, 브랜드, 수출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함.

○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수준의 농업 기반과 풍부한 농수산 자원, 재생에너지 및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AI·데이터·로봇·그린바이오·푸드테크를 결합한 농업 대전환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함.

○ 향후 국가농업 AX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남형 농업 AX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22개 시군과 대학, 연구기관, 농협,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전남 농업은 '식량 창고'를 넘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